YTN 社報
• 발 행 : YTN • 편 집 : 홍보심의팀
• 대표전화 : 398-8000 • FAX : 398-8199
• 제 보 : 398-8282(빨리빨리) 398-8585(바로바로)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2007년 9월 19일 | www.ytn.co.kr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 제 73 호

사이언스 TV 본격 출범

한국의 과학채널 '사이언스TV' 개국 9월 17일 개국에 맞춰 YTN타워 1층에서 열린 개막식 – 왼쪽부터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장,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정윤 과학기술부 차관, 표완수 YTN 대표이사, 임인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서동구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표이사,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의 과학 채널 사이언스 TV가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07년 9월 17일 (월) 정오. 사이언스 TV는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투데이'를 시작으로 한국 과학 방송의 새 장을 열었다.

방송 시간은 YTN과 같은 하루 24시간.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을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쉽고 (Easy) 재미있고 (Fun) 유익한 (Useful) 것들로 꾸며졌다.

또 과학계의 새로운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과학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했다. 올해 편성 비율은 제작과 구매가 40% 대 60% 이지만 오는 2009년 이후에는 제작을 60%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국내 과학 문화 유산을 어린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프로그램인 '꾸러기 과학여행', 신기술 개발현장을 소개하는 탐방 프로그램인 '신기술 플러스'가 대표적이다.

또 이동 과학 차량을 이용한 학생 과학 실험 프로그램인 '달리는 과학 교실',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일반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 내는 '생생 웰빙 테크' 등도 주목할 만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다.

국내 간판 프러덕션들이 만드는 외주 프로그램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많다.

'퀴즈쇼! 마이크로의 세계'는 초정밀 카메라로 촬영한 세계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인데 잠시만 봐도 재미있고 신비한 세계로 푹 빠져 들 수 있다.

국내 첫 본격 로봇 다큐인 'I AM 로봇' 또한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시청자들이 소개한 발명품을 전문가 패널들이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하는 '서바이벌! 상상 발전소'도 간판 외주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이밖에 꼬마 요리사가 진행하는 요리 속 과학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COOK', 여성 관련 과학 상식을 각종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사이언스 레이디'도 놓칠 수 없는 외주 프로그램이다.

구매 프로그램도 과학 상식을 채울 수 있고 재미까지 곁들인 것들로 채워졌다

구매 프로그램은 크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로 나눌 수 있는데 드라마는 2005년 이후 최신작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꽤나 주목을 받았던 작품 위주로 선정을 했다.

또 다큐멘터리는 자연환경과 교양과학등 모두 5개 영역으로 나눠 최고의 작품으로 편성을 했다.

먼저 매주 월, 화요일 낮 11시에 방송될 '스타트렉'은 시리즈 가운데 최신작인 '엔터프라이즈'가 시청자 안방을 찾아간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 작품은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호'을 탄 지구인들의 탐험기를 그렸다.

또 수, 목 드라마인 '리제네시스'는 22세기 복제인간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각종 유전자 범죄에 맞서 싸우는 과학 수사대의 활약상을 그린 정통 과학 드라마이다.

전 세계 과학 다큐멘터리의 새 지평을 연 영국 BBC 제작의 Horizon과 미국 PBC가 제작한 NOVA 역시 사이언스 TV의 대표 구매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공룡의 생성과 멸망등 일대기를 그린 '공룡 대탐험', 50년 후의 세계를 3D 영상을 통해 그려내는 'Update' 또한 구매 프로그램들 중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재미있고 유익한 사이언스 TV 프로그램은 국내 위성 방송인 Sky-Life 채널 406번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 오는 11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익 채널에 선정되면 국내 어디에서나 케이블 망을 통해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이언스 TV 시청 가구는 개국과 동시에 220만에서 공익 채널 선정 이후에는 천 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언스 TV는 과학기술부와 YTN이 함께 자금을 대고 YTN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국내 방송 사상 첫 민, 관 합작 모델이다. 정부와 과학기술인 모두 사이언스 TV 가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과학 기술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 방송을 보다 활성화 시켜 전 국민이 과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언스 TV가 보다 알차게 운영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방송의 미래는 한층 더 밝을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인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사이언스 TV 호'의 항해는 시작됐다. 순탄한 항해도 있겠지만 풍랑과 거센 폭풍우가 '사이언스 TV 호' 앞을 가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언스 TV 승무원들은 국내 과학 방송의 새 지평을 열어 간다는 각오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위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김종술 사이언스 TV 편성기획팀장

사이언스 TV 개국

‘사이언스 TV’ 개국에 바란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민 중 60% 이상이 TV를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창조적 통섭을 통해 다매체 다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New media) 시대에도 TV는 신문 등 여타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적극적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발전의 자양분이 되는 과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언스 TV’가 개국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이언스 TV’는 참여정부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과학기술계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출범하는 ‘사이언스 TV’가 과학기술계와 사회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되어 일반 시민에게는 과학기술 관련한 지식과 정보의 보고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의 장이

되며,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청소년과 주부 및 일반시민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에 이르기까지 각 개개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파악된 ‘니즈’를 토대로 전문성에 바탕한 탄탄한 기획력이 가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정확성’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YTN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TV’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믿으며, 머지않아 우리의 ‘사이언스 TV’가 영국의 BBC Knowledge나 디스커버리 채널 등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이언스 TV’ 개국을 위해 노력해 오신 YTN이 그 커다란 열정을 그대로 계속 앞장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지식과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는 창조적인 힘임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다시 한 번 ‘사이언스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는 ‘사이언스 TV’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사이언스TV 홍보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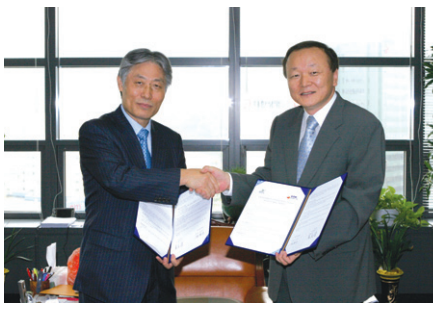
매체설명회(9.10)

SO CEO 간담회(9.11)

과학문화 대중화 및 과학인재 육성 협력 조인식(9.12)

사이언스TV 홍보를 위한 대외적인 행사가 사이언스TV 개국을 앞두고 잇따라 열렸다. 9월 10일 광고대행사의 매체바이어와 미디어 플래너, AE를 대상으로 열린 한강유람선 매체설명회에서 최근 공중파를 뛰어넘는 YTN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분석하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사이언스TV 개국에 발맞춰 사이언스TV의 개요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11일에는 매체관리팀과 사이언스TV본부 공동으로 **SO CEO 간담회**를 열어 사이언스 TV의 편성 방향 · 개요,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SO와의 우호적인 협력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2일에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과학문화 대중화 및 과학인재 육성 협력 조인식**을 갖고 사이언스TV와 스카이라이프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다짐했다. 사이언스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406번이다.

국립산림과학원 MOU(7.25)



특허청 MOU(8.3)

전국재해구호협회 MOU(8.27)

YTN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8월 27일 체결했다. YTN과 보도전문 라디오 방송 사업자 신청을 한 YTN 라디오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각종 구호활동과 캠페인에 적극 협력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방송을 지원해 피해를 줄이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의 과학전문 방송인 사이언스TV가 8월 3일 **특허청과 MOU**를 체결했다. 사이언스TV와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신안 같은 지식 재산 분야의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월 25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과 MOU**를 체결해 산림과학의 발전을 서로 도모하기로 했다.

사이언스TV 시험 전파 발사(7.30)

제7회 YTN배 경마대회(8.5)

곽영주 이성모 최계영 기자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제15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에 곽영주 기자가 ‘구청공무원 엉터리 수당…’으로 보도뉴스부문상을 수상했고 이성모, 최계영 기자가 ‘한국의 명산’으로 보도기획부문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시상식은 9월 4일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출장기 - 남미

"남미정복 YTN"

이역만리 지구 정반대쪽에서 가는 곳마다 YTN을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해외방송팀 류희림 부장과 함께 남미에서 시청하고 있는 한국의 위성방송 실태파악과 YTN 수신기반 확대를 위해서 출장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시작으로 파라과이 아순시온, 브라질 상파울루를 열흘에 갔다와야하는 엄청난 시간 부담도 부담이지만, 짧은 일정에 그 큰 남미대륙을 근시안적 시각으로 "다 봤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더 부담되는 일정들이었다.

우리나라 정반대에 위치하면서 일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한 먼 나라.

3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에 녹초가 돼서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체력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났고 그때 그 머나먼 땅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YTN앵커 목소리는 오랜 타지생활에 지쳐있는 그 누구에게 들려지는 고향의 어머니 목소리 같은 느낌이었다.

모국에 대한 관심이여서일까, 아니면 그리움이여서일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YTN을 시청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돌발영상부터 앵커 옷맵시, 실수하는 장면 하나하나 까지도 한인들이 몰려있는 한인식당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YTN을 시청하면서, 지구 반대편이라는 거리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그야말로 남미를 YTN이 정복했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았다.

지난 연말 전 세계 YTN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시청설문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시청현황과 수신가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조사하였는데 가는 곳곳마다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특히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서는 이사장, 교장, 교사 분들이 모두 나와 학생 수 550여 명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중문화원(오전엔 스페인 정규과정, 오후엔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학교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는데 한국어 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24시간 한국어뉴스 채널인 YTN을 각 학급에 시청하게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파라과이에서도 YTN 해외방송 관계자가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직접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일행을 초대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손님맞이가 결코 가식적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가는 곳마다 현지 동포신문에서 YTN 해외방송팀의 방문사실을 사진과 함께 1면 톱뉴스 또는 주요뉴스로 보도한 것만 보더라도 남미에서의 YTN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브라질의 동포신문은 특별히 인터뷰 코너까지 마련해 1문1답을 싣기도 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남미3개국 한국학교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각급 교실, 강당, 도서실 등에 실시간으로 한국어뉴스를 보급할 계획인데, 단순히 안테나 지원을 통해 시청자를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YTN이 자라나는 재외동포 2, 3세대들에게 모국의 언어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한민족 공동체화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를 기대해본다.

조민철 차장대우 해외방송팀

YTN 보도국팀 본사

헨티나 진출을 타진하기 위하

YTN의 이번 방문 목적은 아르헨티나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다.

YTN은 위성안테나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한국판 CNN라고 할수 있다.

유 팀장은 YTN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손 지사장에게 설명

좋은아침

2007년 06월 19일 화요일 제 120 호

교민 사회 뉴스 확대 노력

1. YTN수신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옥상
2. 아르헨티나 '한국일보' 보도
3. 브라질 '좋은아침' 보도

남미 3개국 시청현황

1. 아르헨티나

▶ 40년의 이민역사를 통해 현재 한인 2만 명 거주

▶ 3년 동안 350세대 정도가 위성안테나를 통해 YTN을 시청하고 있고, 한때 KBS WORLD가 방송됐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실시간 방송으로는 YTN과 아리랑TV가 유일하고 KBS, MBC, SBS 등 공중파는 비디오 대여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현지 방송사로는 위성, 케이블TV 4~5개 있으나 보수적이라 한국방송이 현지 케이블 방송에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파라과이

▶ 1,500세대 약 6천명이 거주하는데 80%이상이 수도 아순시온에 밀집되어있다.

▶ 350세대가 위성안테나를 통해 YTN과 아리랑TV를 시청하는데 아르헨티나가 2만 명에 350세대 시청하는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현지 케이블TV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

3. 브라질

▶ 수도 상파울루에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대부분 한인 밀집지역에 거주

▶ 『한국TV방송』이란 동포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하루 13시간 YTN이 방송 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MBC, SBS 등 한국드라마를 구입한 후 녹화방송 되고 있다. 상파울루에 KBS지국이 있으나 KBS를 시청할 수 없을뿐더러 KBS WORLD도 방송이 중단된 상태인데 YTN만이 당당히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포 상

■ 포 상

특종상 금상

이종구 · 권준기 사회1부, 김민 영상취재팀 – '경찰청장, 수사기간에 한화 측과 통화' 보도

특종상 은상

임승환 정치부 –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 탈당 보도 / 이승윤 사회1부, 하성준 차장대우 · 곽영주 영상취재팀 – '구청 공무원 엉터리 수당' 보도

특종상 동상

이대건 정치부 – '우정사업본부, 예산 60억 거짓 편성 및 집행' 보도 / 이재홍 차장대우 경제부 –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보도 / 홍선기 사회1부 – '해군, 탈영병 체포비로 조직적 상납' 보도 / 김선희 차장대우 문화과학부 – 대학로 소극장 실태 집중 취재 보도

공로상

김재홍 타워운영팀 – 서울타워 방호 능력 증강 공로 / 이정형 타워운영팀 – 서울타워 본관 개선공사 감독 공로 / 이승훈 차장대우 정치부, 강덕천 그래픽팀, 박관우 영상편집팀, 문석호 차장대우 · 유제동 송출기술팀 – '5.17 남북열차 시험운행' 관련 제작 공로 / 박홍구 차장대우 뉴스4팀 – 'FTA 협상 관련 보도' 제작 공로 / 김형욱 차장대우 · 이재우 차장대우 · 김세명 기술관리팀, 이계성 부국장대우 · 김태동 차장 · 유화성 차장대우 인프라팀 – 주조 Master Switcher 자체 교체 공로 / 정경남 차장대우 인프라팀 – 송신소 운용 및 무선설비 이론 서적 제작 공로 / 이규일 제작기술팀 – 인터컴 헤드셋 개조를 통한 경비 절감 공로 / 이병우 마케팅2팀 – 광고 매출 초과 달성 공로

SO공로상

이성진 CJ케이블넷 경남방송 / 채건하 CMB 대전방송 / 권현 C & M / 원강수 YBN 영서방송 7. 4

출장기 -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

마르지 않을 눈물이 스며있는…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과 관련해 하나투어 본사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다. 데스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일 캄보디아에 갈 수도 있으니 귀사하라는 내용이었다.

해외에서 자체장비 즉, BGAN을 이용해 위성중계를 하는 것은 YTN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만큼 심적으로 받은 느낌은 BGAN장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반면 그만큼 믿고 보낸다는 데스크의 격려가 다소 위로가 되었다.

6월 27일 일정이 확정되어 10시30분(이하 한국시간)에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일진은 이미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고 이동규, 권준기, 김화수, 나 이렇게 이진으로 출발했다. 차안에서 한 친구가 걱정이 되는 듯 '위성중계가 될까요' 라고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위성중계장비라 함은 커다란 SNG를 생각하는데 가지고 가는 것은 자그마한 BGAN SYSTEM BOX이니 말이다. 기본적인 BGAN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현지 도착하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취재, 촬영기자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하자 잘 이해된다는 표정이었다.

중국 광저우를 거쳐 12시간 만에 프놈펜에 도착했고 유해가 안치된 칼멧병원으로 바로 이동했다. 다들 잠이 든 시간이지만 분향소의 불빛은 비통함의 분위기에 산란되는 듯 긴 꼬리를 머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늘을 가린 어두운 밀림 속 깊숙이 온 것처럼 주변은 온통 검은색으로 어디가 어딘지… 그러나 위성의 메아리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모두들 사전 취재를 끝내고 숙소에 들어가니 새벽3시였다. 6시 첫방송을 위해서는 5시까지 이곳에 다시 와야 하니 남은 시간은 2시간. 잠깐 쉴 만한 시간도 허락지 않아 씻고 난 후 바로 병원으로 출발해 일진의 뒤를 이어갔다. 무사히 첫 방송을 끝냈지만 현지시간은 꼭 두새벽인 4시였다.

긴 여정에 쏟아지는 피로와 새벽인데도 잠을 안자는 불청객인 모기들, 그리고 무더위까지 가세해 점점 더 지쳐만 갔다. 손에 원고를 들고는 있지만 보지 않고 멘트를 하는 이종구 기자를 모방송취재진이 보고는 감탄을 한다. 뒤를 이은 권기자도 청출어람이라 했던가, 역시 대단하더구먼. 더 나은 화면을 담기 위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쉼 없이 움직이는 윤원식, 이동규기자, 정말 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6시 뉴스 연결 직전 구름이 살짝 멍이 들더니만 어느새랄 것도 없이 갑자기 바람과 강한 빗줄기를 쏟아낸다. 위성연결이 끊어졌고 모두들 방송장비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차안에 있던 BGAN SYSTEM BOX에까지도 빗물이 치고 들어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고 어느새 입술이 퍼레져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대신 히터를 작동하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다. 무엇보다도 카메라와 SYSTEM BOX상태를 점검해야 했다. 현장에서 철수 한 후 숙소에서 무려 2시간동안 드라이기로 장비를 말리고 또 말렸다. 점심은 분향소에 있는 라면으로 해결해서 허기질 법도 한데 워낙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허기짐을 느낄 수 가 없었다. 숙소에 있는 겨우 저녁을 해결하고 조금 더 고생하자며 서로의 위로를 담고 숙소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저녁11시, 한국에 출발 한 후 48시간 만에 잠자리에 든 것이다.

반갑지 않은 모닝콜을 받고 모든 짐을 챙겨 다시 병원으로 이동했다.

저녁이 되자 운구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운구장면을 편집함에 있어 주변 여건이 허락지 않아 미리 보아둔 PC방으로 급히 이동했다. 영업시간을 끝내는 10시경에 도착했으나 주인의 양해를 얻어 동규씨의 재빠른 편집 후 10시20분에 인터넷 송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였다. 90kbps로 80초 분량을 송출했는데 약 1시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송출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낼 수도 있을 상황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출국을 위해 11시까지 공항에 도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음 비행기는 이틀 후에 있게 되어 암담한 그늘이 엄습해 전율이 떨리는 느낌이었다.

수소문 끝에 I호텔의 인포데스크허락을 받아냈고 여기보다 속도가 더 나을 것이라는 한낱 희망을 갖고 출발했다.

webhard, YTN FTP upload가 안 되는 절박함이 보였다. 호텔 보안장비에서 프로그램 설치관련 파일을 업,다운을 못하게 해놓았고 아울러 보안 설정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삼자회동을 한 결과 포털사이트의 대용량 파일첨부를 이용하기로 하고 시도를 했다. 여러 포털에 접속을 시도하던 중 한 포털에서 응답이 왔다. 파일첨부 후 [보내기]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이 10여초가 흘렀다. 말이 10여초지 10분은 된 듯 한 느낌이었다. 1%,2%..10% 송출량이 증가했고 다행히 속도는 300kbps로 PC방보다 3배 이상 빨랐다.

이때까지 누구도 탑승시간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다. 화면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탑승을 포기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25%쯤 송출했을 때 정적을 깨우는 전화벨이 울렸다. 공항에 미리 도착한 팀으로부터의 연락이었는데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지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오! 하늘이시여..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니..감사합니다. 디지털 기획팀 은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족한 뒷마무리를 부탁했고 11시 20분으로 향해가는 시간을 뒤로 하고 급히 공항으로 이동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의 길은 거침없이 highway였다. 출발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공항 전산망이 down돼서 항공권 및 모든 발행절차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전산장비도 down되는 게 좋을 때가 있구나하는 감출 수 없는 즐거운 미소가 나왔다. 탑승하자마자 언제 좌석에 앉았나 싶을 정도로 모두들 쓰러졌다. 결코 마르지 않을 눈물이 스며 있는 이곳을 뒤로 하며…

이종구,윤원식,이동규,권준기,김화수,박채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던 그 날의 날씨처럼 지금 창밖에는 무더운 열기를 식히는 듯 비가 내린다.

김진국 중계팀

- INMARSAT(Internationl Maritime Satellite)
  정지궤도상에 있는 긴급구조 및 상업용 인공위성
- BGAN(Broadband Global Area Network)
  INMARSAT를 이용한 상업용 통신서비스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기

구청 공무원 엉터리 수당… 줄줄새는 혈세

지난 5월 28일 방송된 〈구청 공무원 엉터리 수당… 줄줄새는 혈세〉보도가 제15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보도뉴스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 이유로는 공무원의 허위 수당 청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공무원의 자정노력과 시정조치 등의 행동적 변화를 이끌어낸 보도였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카메라기자의 센스로 지문 인식기에 허위 기록을 하는 생생한 화면을 여러 각도에서 영상 취재해 뉴스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데 있다고 심사위원들은 밝혔다.

취재의 포인트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퇴근 후 늦은 밤 구청에 돌아와 출퇴근용 지문 인식기에 기록하는 모습을 포착해 내는 것이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에 담아야 할 것들은 다음이다. 1) 밤 시간 구청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공무원 2) 그들이 집에 갔다 왔거나 놀다온 듯한 복장과 모습 3) 그들이 출퇴근용 지문 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4)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변명하는 녹취.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선 일단 촬영 포인트를 잡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승윤 기자가 전날 미리 파악해 놓은 구청 맞은편 건물 복도를 주 포인트로 잡았다. 이 건물 복도는 통유리에다 어두운 색이어서 밖에서는 취재진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단, 이 위치에서는 구청의 정문을 출입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정확히 잡을 수는 있으나 입구에서 약 10m 안에 위치한 지문인식기의 모습은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구청퇴근시간 전에 촬영 포인트를 몇 군데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구청을 한 바퀴 돌고, 다른 건물에 올라가 보아도 지문인식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는 없었다. 구청 앞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지문인식기 앞에 줄 서있는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지문인식기는 그 앞에 놓인 증명서발급기에 가려 보이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지문인식기는 몰카로 촬영을 하거나, 취재 마지막에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들이닥쳐서 촬영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후 6시부터 공무원들의 퇴근이 시작됐다. 퇴근 모습을 스케치한 후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녁 9시에 건물 복도로 돌아와 촬영 준비를 했다. 뷰파인더를 통해 구청입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구청 정문 안으로 지문인식기가 보이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지문인식기가 복도 형광등 불빛으로 인해 맞은 편 유리창에 비친 것이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이 우리를 돕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 복도, 옥상 그리고 구청 정문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약 1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다시 돌아와 출퇴근기록기에 지문을 찍고 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지문을 찍는 모습에 열중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옷차림과 행동에는 크게 신경을 쓰질 못했다. 술에 취해 비틀대는 모습,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모습 등 공무원들이 확실히 놀다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컷이 없었다. 이번의 아쉬움을 뼛속까지 새겨두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

끝으로 이번 수상으로 인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카메라기자가 되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해본다.

곽영주 영상취재팀

"YTN이 만들어 준 기적!"

파라과이한국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수학여행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는 한국 동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한국학교가 있다. 1992년에 개교한 이 학교의 초등학교 과정 학생 수 200여 명의 작은 학교이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꿈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꿈이 오는 12월이면 이루어진다. YTN 해외방송팀이 학생들의 사연을 방송으로 소개하면서 현대증권이 그들의 한국수학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아래 글은 담임교사인 최대영 선생님이 YTN 해외방송팀에 보내온 감사의 편지.

"선생님!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이 물음이 학생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3월초에 학생들과 시작한 '한국으로의 졸업여행의 꿈'이 이렇게 실현될 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다가오는 기쁨은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받은 첫 인상이 지금도 너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순수한 눈망울과 웃음 그리고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 이것은 제가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어디로 갈래 또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래라고 물을 때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한국"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진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선 학생들과 가장 먼저 한 것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나 담임교사인 저로서는 처음부터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막막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선 모두가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간 중간이나 틈이 나면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특히, 사회 시간에는 정말 한국을 가지 않고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가자고 하였습니다.?저는 나름대로 "파라과이 한국학교 졸업여행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담은 글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지…,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강조하면서 마음을 다하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저는 수학여행 계획서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알려서 후원자를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한 결정적인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YTN 해외방송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파라과이 한국학교에 인공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여 YTN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해외방송팀원들(류희림 부장님, 조민철 차장님)을 만나 뵙고 저는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우리 아이들의 졸업여행 계획을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 팀원들의 진심어린 반응을 접하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YTN 해외방송팀에서 졸업여행계획서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시도하는 것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는 저의 평소 생각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YTN 해외방송팀으로부터 열심히 알아보겠다는 회신을 받았을 때도 정말 기뻤습니다.

나의 일도 아닌 남의 일을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시겠다는 회신을 접했을 때는 가능성이 5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눈에 띄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기에 최선을 다 하자고 계속 아이들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YTN 고용철 리포터님이 한국 YTN 방송에 내보낼 리포트 기사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생한 수업현장과 한국으로의 졸업여행의 꿈을 잘 담기 위해서 노력하신 고용철 리포터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졸업여행의 꿈을 이루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희망을 담은 방송은 한국에 전해졌고 이것을 본 후원자님과 YTN 해외방송팀, 고용철 리포터님의 노력 덕분으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의 졸업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계기를 가지고 한국을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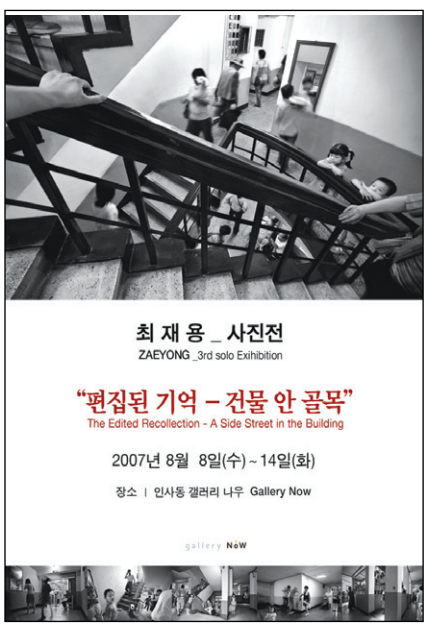
최대영 재파라과이 파견교사

주요 인사 출연

장사익 (뉴스 Q 7.9)

임동혁 (클로즈업 8.9)

최재용(그래픽팀) 사진전(8.8~14)



연수기-美 조지 워싱턴大

1년 만에 석사 따기!

지난해 8월 초부터 1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연수생활을 하고 지난 8월 3일 귀국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 연수생들의 경우는 특정 대학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다소 여유를 갖고 연수 생활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워싱턴 DC 시내에 소재한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국제문제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에 등록해 유학생으로 생활했다는 사실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까지는 유학생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일 외교 분야 전문기자로서 활동하는데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같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이 넘어서 그것도 남의 나라인 미국에서 남의 나라 말인 영어를 사용해서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따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시내 한 가운데에 위치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운동장이나 큰 체육관이 없다. 졸업식 행사도 학교에서 치르지 못하고 백악관 앞마당이나 미 국회 의사당 앞 잔디밭(내셔널 몰)에서 개최하는 특이한 전통을 갖고 있다.

지난 해 8월 11일 미국에 도착해서 아파트 입주하고 자동차 구입하고 면허증 따고 각종 가재도구를 구입하는 등 식구들이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대강 마련해 놓고 8월 말 경제학 여름 강의를 시작으로 유학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학기에는 3학점짜리 4과목, 12학점을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니 이상한 것이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과목만 수강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듯 엄청난 분량의 독서숙제를 내더군요. 제가 영어책이나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속1와 과제물 분량을 대조해보니 하루 20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읽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할 수 없이 강의 시작 2주일째 들어서는 아침 6시 30분에 도서관에 도착해 밤 10까지 책이나 논문을 읽는 일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500만원을 주고 자동차를 별도로 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해서 1년간 운용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1년 보험료, 주차료, 자동차 감가상각비용, 기름 값, 일반적 유지비 등등 500만 원 이상이 지출돼야 하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구입으로 번 시간은 하루에 아침, 저녁 합쳐서 1시간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학기는 사정이 괜찮았다는 것을 2학기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1학기 중에는 일요일만은 휴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월 중순 2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시간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5과목 15학점을 이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요일까지 도서관에 가서 밤 10시까지 책을 읽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워싱턴에 있다는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몇 채나 되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 다만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대별로 가장 편리한 화장실이 몇 층에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아침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도서관 건물 1층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베이글과 커피 한 잔으로 때웠는데 이때부터 커피 중독이 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점심 대책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다만 새벽에 나가다 보니 반찬 마련이 불편해서 밥만 싸 갔고 도서관 근처 샐러드 바에서 반찬 두 어 가지를 사 먹었습니다. 저녁도 도서관 옆 건물 웬디스에서 1 달러짜리 햄버거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매일 저녁 햄버거 집에 가다 보니 그 집 직원들은 저를 보고 '주니어 햄' 이라고 부르더군요…

공부했던 내용은 주로 미국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2학기 동안 9과목 27학점을 이수했는데 국제경제학과 국제정치 이론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과목이었습니다. 미국 외교사, 미국 외교정책 비판, 미국 국무장관 연구, 미 의회와 외교정책 연구, 미 국방 변형 개념 연구, 미 외교 정책 세미나, 아태 지역 국제기구론 등입니다.

수업은 대체로 토론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수들이 지난 시간에 제시했던 독서 과제를 거론하면서 화두를 던지면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개입해서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때 과제물을 읽어오지 않은 학생은 말을 하지 못하고 남들 토론을 지켜보거나 또는 읽어온 척 하면서 자기의 주장 위주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저와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벙어리 쪽을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모르고 발언을 시작했다가 교수나 다른 학생들의 반박 토론이 들어오면 아주 창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능숙하면 그런대로 수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마흔이 넘어서 건너간 미국에서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6시 반에 도서관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유학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학교 측에 입학을 신청하면서 장학금 지급도 함께 요청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교 측에서는 Freeman Foundation이라는 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Freeman Fellowship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저에게 1년간 3만 달러에 해당하는 학비는 물론 생활 자금 1만 8천 달러까지 지급해 줘서 저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재단에서는 장학금을 주면서 수혜 대상자들이 B학점 이상으로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 점이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B 학점 아래로 내려가는 과목이 생기면 낭패라는 생각에 수업 준비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얻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피곤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그래도 입학을 준비하던 과정에 비하면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연수 지원을 결심한 이후 국제정치 전공으로 해서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을 하는데 몇 주일이 걸렸습니다. 끈질기게 정보 검색을 한 끝에 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냈고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서류와 에세이, 그리고 토플 시험 성적표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문건 하나하나가 높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토플의 경우 야근을 마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시험을 보는 것 자체로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 시험 기준으로 300점 만점에 250점 이상이 돼서 입학 신청을 받아주는데 처음 본 시험에서 그 점수에 미달하는 바람에 한 동안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퇴근한 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 근처 PC방을 전전하면서 토플 공부를 하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학 준비 과정에서 또 어려웠던 점은 장학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유학을 위해 13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중대 조치(!)를 내렸지만 1년 학비 3천만 원 내고 아파트 1년 월세 2천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였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했던 준비 과정, 그리고 1년간 학교 도서관과 강의실 외에는 다녀보지 못하는 황당한 연수생활을 거쳐 지난 5월말 졸업식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감개가 무량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보니 영어 구사 능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또한 책을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과중한 수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소나기 피하듯 조급한 마음으로 책을 대하다 보니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돼서 체계적으로 지식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또 워싱턴에는 한미관계나 북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유감입니다.

다만 지난 1년간 후회를 전혀 남기지 않을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와 관련된 책과 논문을 읽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곱씹어서 되살린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면 통일과 외교, 안보 분야에 큼지막한 뉴스가 쏟아질 것임이 확실한 만큼 이번 1년간의 연수 생활이 회사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도 연수를 허락해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 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왕선택 차장 정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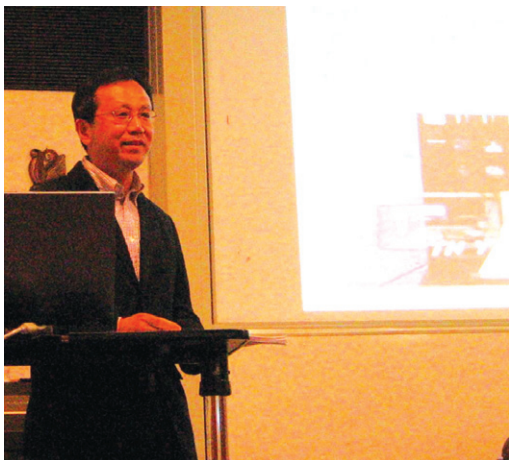
연수기-영국 옥스퍼드大

무한 자유 1년 잊을 수 없는 나의 보물찾기 놀이

대한민국 서울. 어딜 가나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은 만큼 말도 많다. 말은 많지만 영혼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진솔한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을 피하고 말을 피해서 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사람과 말을 엮는 술자리도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 때문에 술자리를 피하는 것은 종종 스스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홀로 사는 왕따임을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때가 많다. 사람과 말, 술자리, 이 셋을 피하면서 살아 보는 것, 아니 이 셋으로부터 탈출해 보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가 간직해 온 작은 꿈이었다.

2006년 8월 21일 유난히 더웠던 그 날, 나는 영국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무한 자유 1년. 내 평생 언제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생각만 해도 기쁨이 가득한 1년이었다. 그러나 팔순을 코앞에 둔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냐며 가족들 잘 챙기는 게 행복이라며 영국행을 달갑게 여기시지 않았다. 흔히 연수는 가족을 위한 무한 봉사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와 정반대로 아내와 큰 딸과 떨어져 사실상 나만을 위한 무한 자유 1년을 택했으니 노부모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듯 싶다. 아내 역시 나의 영국행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 사람과 말, 술자리라는 세 가지 울타리를 탈출하지만 아내는 내 연수로 인해 일상이 달라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돈 없는 학생(?) 두 명을 챙겨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천성 탓인지 난 백년가약을 맺은 지 이십 년째지만 가끔 가족이라는 틀로부터의 해방을 꿈꿔 왔다.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소풍은 반복되는 일상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일상이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소풍 때 자주 하는 보물찾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였다. 무한 자유 1년. 나는 이 일 년이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다고 기대했다.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반복 되는 하루 일상 그리고 그 일상으로 365일 엮인 1 년. 나는 이십 년 가까이 지속된 이런 엮이고 엮인 일상을 드디어 벗어나 홀로 발길 가는 데로 걷고, 평소 읽고 싶었지만 시간 부족을 핑계로 못 읽었던 책도 정말 몽땅 읽고 싶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해보는 보물찾기 놀이 생각만 해도 재미있지 않은가?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영국에서의 보물찾기 놀이는 기대와 매우 달랐다. 영국 생활, 아니 옥스퍼드 생활 1년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외로움, 고독, 심심함, 쓸쓸함, 답답함 등의 단어로 범벅 된 하루가 이어진 기간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한국을 막상 벗어나고 보니 달리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어든 영어든 한 마디도 할 기회를 찾지 못한 때도 있었고, 그런 날은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술집에 가 처음 맛보는 사람은 먹기 힘든 영국 전통의 쓰디 쓴 맥주를 몇 잔씩 먹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 사람과 말, 술자리라는 이 울타리에 얽혀 있는 한국인 특유의 유전자를 벗어나기가 기대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런 유전적 요소가 내 피 속에서 좀처럼 빼내기가 어려움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핑계로 전화를 걸곤 했다. 아내는 내가 그토록 외쳤던 무한자유 1년을 즐기지 왜 비싼 전화비만 지불하고 있냐고 책망하곤 했다. 궁여지책 끝에 내가 택한 해법은 인형이었다. 웬 인형?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외로움, 고독, 심심함, 쓸쓸함, 답답함 등의 단어를 없앨 파트너로 인형을 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인형을 사줘 본 적은 있어도 나를 위해 인형을 사 본 적은 없었다. 영국 생활 초기는 내가 기대했던 보물찾기가 아니라 인형놀이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세대와 한국 정치문화'에 대한 발표회

영국 옥스퍼드 대학 로이터 펠로우들과 함께

이렇게 인형을 벗으로 삼자 초기 우울증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수백 년간 이어온 옥스퍼드 대학 특유의 1대 1연구지도 방식-튜터링(tutoring) 교수법에도 적응이 됐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영국 문화에 적응했다는 표현보다는 한국 문화를 포기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 현지 생활의 적응이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한국적 유전자를 모두 현지 유전자로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그러나 낯선 이국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떨쳐내기는 어려웠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국의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물론 세계 각국 주요 언론사에서 온 기자들이 세계 경제 규모로 볼 때 12위권의 한국을 너무 모르고 특히 관심도 없기 때문이었다. 북한에 대해 질문을 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그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때만 반짝했고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간혹 내가 미모의 여기자였으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자주 해보았다. 그러면 무관심으로부터 오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은 덜하지 않을까 하고. 사람과 말, 술자리, 이 셋을 피하면서 살아 보는 것, 아니 이 셋으로부터 탈출해 보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들의 무관심에 오히려 이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한 자유 1년의 목표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귀국을 학수고대하며 달력에 밑줄 긋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년 무한 자유의 기간은 벌써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2007년 7 월. 이건 아닌데 싶어 만사를 접어두고 배낭을 메고 떠났다. 장기 유럽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돈 되는 데로 티켓을 사고 발길 가는 데로 걷기 시작했다. 북극에 가장 가깝다는 아이슬란드까지 갔다.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특히 텐트를 갖고 다니며 들판에서 자는 '진짜' 배낭족들이 많았다. 그 중 스코틀랜드에서 온 스티븐 페어클러와의 만남은 일상생활로부터 끊임없이 탈출을 꿈꾸는 철없는(?) 내게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쉰 살 이혼남으로 슈퍼마켓 점원인 그는 휴가를 맞아 아이슬란드 들판에 텐트를 치고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역시 혼자 왔으니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하리라는 생각에 다가가 물었다. "난 요즘 혼자 이렇게 다녀보니까 외롭고 심심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다. 넌 혼자 여행하는 게 따분하고, 외롭지 않니? "라는 나의 말에 그는 내 눈을 한 참 동안 쳐다보더니 너무나도 명쾌하고 금방 쉽게 답변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외롭지 않다. Lords with me, I am not alone." 난 그의 말에 갑자기 머리가 띵했다. 2002년 세례를 받은 이후 묵주반지는 항상 끼고 다녔지만 내가 잊고 지내던 것을 그가 일깨워 준 것이다. 무한 자유 1년 연수기간 잊을 수 없는 나의 보물찾기 놀이였다.

김상우 차장 국제부

게 시 판

■ 기구 개편

회사는 9월5일자로 '월드사이언스포럼 추진단'을 보도국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월드사이언스포럼 추진단은 개국 13년차 뉴스전문 채널에 걸 맞는 연례 대형 프로젝트 발굴이 주 업무다.

■ 입 사

장신성 편성운영팀, 장우석 · 윤기중 · 이승한 제작기술팀, 윤종원 인프라팀 7.2 / 김여진 해외방송팀 7.16 / 황성현 경영관리팀, 김미연 편성운영팀, 이재혁 제작팀, 최승용 편성기획팀 7.23 / 이인규 마케팅1팀, 이종하 마케팅2팀 9.10

■ 퇴 사

김강륜 제작팀 6.28 / 우정이 국제부 8.10 / 김명숙 뉴스4팀, 진유진 그래픽팀 8.31

■ 전 보

이용구 차장대우 편성기획팀, 진유진 그래픽팀, 박진언 편성기획팀 6.30 / 박상남 차장 보도국(해외연수) 7.10 / 황성현 경영관리팀, 정영근 선거방송팀장, 장기영 선거방송팀, 김해중 차장 해외방송팀, 김태동 차장 기술관리팀, 이경준 인프라팀, 김익현 차장대우 · 김영호 · 이기래 송출기술팀, 박선우 중계팀 7.23 / 이동우 차장대우 보도국(해외연수) 7. 30 / 정재훈 차장대우 보도국(해외연수) 7. 31 / 김상우 차장 국제부, 이민우 편성운영팀, 최승용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8.21 / 윤성수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8.24 / 이홍렬 보도국 취재부국장 월드사이언스포럼추진단 단장(겸직), 박순표 월드사이언스포럼추진단, 김재형 뉴스3팀, 호준석 차장대우 뉴스 4팀, 김준영 뉴스 5팀, 황보선 차장대우 뉴스 6팀, 박진수 영상편집팀, 이승주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조민철 차장대우 해외방송팀 9.5 / 박기용 · 이인규 마케팅 1팀, 이종하 마케팅 2팀 9.10

■ 부 음

정광웅 차장대우 제작기술팀 빙부상 7.13 / 임세혁 제작기술팀 부친상 7. 15 / 장종현 제작기술팀 모친상 7. 17 / 홍수기 전주지국장 부친상 8. 26 / 박홍구 타워운영팀 부친상 9.14

■ 결 혼

신 호 정치부 7. 7 / 김석순 사회1부 9. 8 / 이홍연 경영관리팀 9. 15

방송과 UCC

UCC, 기본에 충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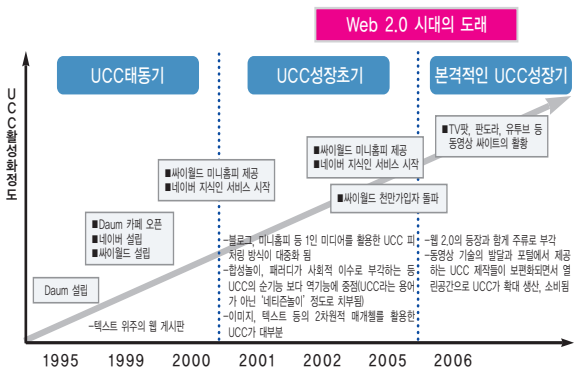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UCC 천국!

UCC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와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중생 폭력사건 동영상은 교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고, '목도리녀', '세자매 댄스' 등의 동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국민들은 UCC를 통해 '마빡이'와 소통하며 주말 안방의 웃음꽃을 만들어 내고 YTN의 UCC 토론회는 올해 대선에서 UCC가 미칠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켰다. 최근에는 8살 꼬마의 환상적인 드리블에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UCC는 최근 방송, 신문, 인터넷을 불문하고 도처에서 노출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대체 UCC가 뭐길래 언제부터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걸까?

진화하는 UCC

UCC에 대해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UCC는 곧 동영상'이라는 생각이다. 동영상 UCC는 전체 UCC의 한 영역일 뿐이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다. 인터넷 초창기 시절 텍스트 중심의 게시판에서 시작한 것이 PC성능과 네트워크 속도 향상 등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댓글과 이미지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로 진화했고 지난해부터는 동영상 UCC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UCC하면 동영상 UCC를 떠올리게 될 정도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UCC의 본질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즐기는 놀이'이다. [UCC를 보는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다음 e-marketing 본부, 2006.11] 즉,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합성하고, 댓글을 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직접 만드는 콘텐츠를 통칭하는 말인 것이다. 또한 지난해 '참여와 개방, 공유'라는 모토를 내건 웹 2.0의 트렌드는 '네티즌들의 놀이'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UCC를 보는 참여와 공유의 인터넷, 다음 e-marketing 본부, 2006.11]

동영상 UCC의 성장 : 06년 급성장, 07년 상반기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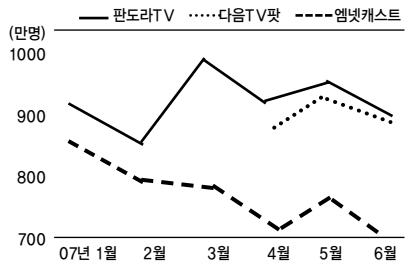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동영상 UCC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부 동영상 UCC 사이트의 경우 포털 사이트 못지않은 방문자 수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2007 한국인터넷백서(한국인터넷진흥원, 07년 5월 발간)에 따르면 동영상 UCC 서비스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방문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는 2007년 3월 현재 포털의 대표적 동영상 UCC서비스인 다음 TV팟과 동영상 UCC 전문 사이트인 판도라TV의 방문자 수가 각각 1200만 명, 100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3배, 6.8배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주요UCC 동영상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도라TV의 경우 지난 1월 913만 명에 달했던 월간 순방문자수가 4월에는 872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834만 명으로 감소했다. 앰엔캐스트는 1월에 순방문자수가 849만 명이었지만 6월에 701만 명으로 줄었다. 다음TV팟도 마찬가지다.

동영상 UCC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주로 어떤 콘텐츠들을 선호할까?

엠군미디어가 자사 동영상 UCC 포털 '엠군(www.mgoon.com)' 방문자 7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좋아하는 UCC 장르'를 묻는 질문 답변 순위는 1위가 인기영화 및 코미디 패러디 (58.09%)였으며 2위는 춤, 노래 등 장기자랑(24.89%)이었다. 기타 실생활 정보 습득은 9.28%에 그쳤다. (인터넷 사용자들 인기 영화, 코미디 패러디 UCC 선호해, 전자신문, 07.7.20) 이러한 소비의 편향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방문자수의 감소 원인으로 개인의 신변잡기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동영상에 대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CC인기 거품이었나?, 한국경제 07.7.30)

UCC사이트 월간 순방문자수



UCC 인기 거품이었나? 한국경제, 07. 7. 30

저작권 침해 논란 : Created? Copied?

동영상 UCC가 양적인 성장에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은 동영상 UCC의 장래를 위협할 만한 장애요인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올해 1월 주요 포털의 UCC사이트 및 동영상UCC 전문 사이트의 신규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순수 창작물은 전체 UCC의 14.5%에 불과하고, 85.5%는 기존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 등의 복제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 한국 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정도면 User Created Contents란 설명을 User Copied Contents라고 바꾸어야 할 판이다.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3월 UCC가이드라인 컨퍼런스에서 iMBC가 발표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적발한 저작권 침해 사례 건수는 모두 109,530건에 이르며,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1) 국내 주요 포털 (20개사) : 20,569 건, 2) 국내 주요P2P (12개사) : 15,586 건 3) 국내 주요 웹하드 (39개사) : 73,375 건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는 60여개 동영상UCC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 지난 4월에는 10 여개 포털과 동영상UCC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영상 UCC 업계에서는 '인용권'을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을 진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용권은 이용자가 기존의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해 UCC로 제작할 경우 이용자의 자율권을 인정해주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용권에는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저작권 사용료를 대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다. 판도라TV에서는 인용권을 지상파 방송사에서 허용할 경우 광고 수익의 30%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UCC 업계의 요구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3사의 반응이 시큰둥해 저작권침해 논란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어려운 상황이다.

불안한 수익 모델 : 동영상 UCC, 돈은 언제 벌어주나?

동영상 UCC 포털들의 주수입은 동영상 앞에 붙는 광고에서 나온다. 한 달 동안 천만 명 가까운 방문자를 끌어 모을 정도로 성장한 동영상 UCC 포털들이 양적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직까지 신통치 않다.

판도라TV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50억 원을 넘어섰지만 10억~20억 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도라TV 관계자는 "매출액의 90%가 광고일 정도로 수익은 광고에 편중돼 있다"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투자비용이 많아져 흑자전환은 연말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앤캐스트를 운영하는 S.M.온라인은 상반기 1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적자는 10억 원 가량이다. 매출액의 70%인 13억 원은 광고 수주액이다. 엠군도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UCC 사이트 '빛좋은 개살구', 국민일보, 2007.6.18)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동영상 콘텐츠 저장 비용과 네트워크 관리비용은 동영상 UCC 서비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판도라TV의 김경익 사장은 한 강연회에서"무한대의 시간을 무한대의 공간에 담아준다"면서 자사의 UCC 서비스를 자화자찬했지만, 업계관계자들은 사용자들이 올리는 동영상 파일이 하루 1천 기가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매달 수천만~수억 원 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광고 수익만으로는 데이터 저장장치 · 네트워크 관리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UCC가 낳는 것은 황금알뿐일까? 07.3.26)

동영상 UCC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음은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인정한다. 다음 김동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7일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동영상UCC와 관련해 "지금보다 3~4배 이상으로 트래픽이 증가해야 의미있는 매출을 만들 수 있다" 고 밝혔다. 다음은 트래픽 증가를 위해 동영상 UCC 마케팅비로 1분기 13억 원, 2분기 70억 원을 각각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같은 수준의 마케팅비를 책정해 놓고 있으며, 동영상 중계권과 관련 네트워크 확보에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다음, UCC동영상에 지속 투자", 연합뉴스, 07.8.7)

변모하는 동영상 UCC

동영상 UCC업계가 저작권 침해 논란과 불안한 수익모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동영상UCC는 온라인 쇼핑, 관광, 광고, 공공기관 캠페인 등의 분야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방송이나 언론 분야에 UCC는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을까?

현재 방송사들은 자사 인터넷자회사를 통해 자사 보유 방송 콘텐츠를 UCC로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KBS 내콘(ucc.kbs.co.kr)', MBC 드라마펀(dramafun.imbc.com)', SBS 넷TV(netv.sbs.co.kr)'에서는 자사 프로그램 방송 콘텐츠를 네티즌이 편집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 UCC 서비스는 저작권자인 방송사의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작권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놀이'를 즐길 수 있고 UCC가 화제가 될 경우 해당 드라마나 연예인의 홍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UCC에 공을 들이기는 하지만 지난 22일 발표된 랭키닷컴의 사이트 전체 순위를 보면 KBS 34위, iMBC 37위, SBS 42위를 차지하여 18위를 차지한 판도라TV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를 활용한 UCC가 일반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UCC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언론분야에서는 조선일보와 노컷뉴스의 활동이 눈에 띈다. 조선일보의 경우 자사의 기사에 현장 동영상을 삽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노컷 뉴스도 노컷 영상이란 메뉴를 두고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을 소위 PCC라고 하는데 소재의 선택이 기존 UCC의 경향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UCC의 범주에 넣는다. UCC라는 용어가 제작주체로서 일반 이용자들을 강조하는데 반해 PCC는 제작주체로서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해서 Professional Created contents 또는 Proteur (professional과 Amateur의 합성어) Created contents라고도 한다. PCC는 소재 선택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소리를 동영상에 담아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존 동영상 UCC와는 달리 언론사가 직접 촬영 편집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YTN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공개 영상'도 이러한 PCC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PCC는 생산방식이 기존의 제작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일반인 중심의 동영상 UCC처럼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영상 UCC는 양적 성장을 이뤄냈고 인터넷 이용의 확산 추세에 따라 UCC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자신의 개성을 뽐내거나 남의 선행을 널리 알리는 의도의 순수하고 진정한 의미의 UCC는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동영상 UCC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UCC 업계는 콘텐츠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수익모델의 정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언론이나 방송 분야의 경쟁사들이 동영상 UCC 분야에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동영상 UCC가 예전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처럼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인터넷 지형을 바꿀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구본승 디지털YTN 매체운영팀장